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2019. 9. 25.(수), 10:00
2. 장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1	우정원, 이주희, 임원정, 신하운, 유제욱, 이민하, 김다연, 남상택, 이정화, 장남수, 송희준	최형석(간사)
불참인원	1	정연화	

4. 안건

- 제1호의안: 2020학년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개편(안) 자문
- 제2호의안: 대학평의원회 개선 관련 총학생회 요구안 검토

5. 개회선언

- 가. 이민하 평의원은 참관인 허용을 요구하였고, 의장은 명시된 대학평의원회 참석 대상자 외에는 회의 장소에서 퇴장할 것을 요청하다.
- 나. 의장은 이민하 평의원의 교과과정 개편 자문 안건 철회 및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관과 발언 허용 요청에 대한 이메일 회신 자료를 배부하고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간사는 학생평의원 요구 내용과 의장 및 부의장의 논의를 거쳐 회신한 이메일 내용을 설명하다.
- 다. 의장은 참관인 허용 여부는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고, 의장과 부의장이 논의한 결과를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참관을 불허함을 말하고, 참관인이 모두 퇴장한 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알리다.
- 라. 참관인 퇴장 후 회의를 재개하다.
- 마. 의장은 정연화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간사는 12명 중 11명 참석으로 과반이상 출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
- 바.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 사. 이어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 회의록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회의록 작성 후 전체 평의원들에게 회람하여 내용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게재하였음을 알리다.

6. 안건 자문 및 검토

가. 자문사항

□ 제1호의안: 2020학년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개편(안) 자문

- (1) 의장은 제1호의안 2020학년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개편(안) 자문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 안건에 대해 담당하는 부처에게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전공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하여 교무처장, 교양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하여 호크마교양대학장에게 배석을 요청하였음을 알리다.
- (2) 이민하 평의원은 학교 부처의 배석을 허용하듯이 학생 요구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학생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작년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의장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결정사항에 대해 '예외'가 불분명하므로 다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다.
- (3) 의장은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를 전체 평의원들에게 미리 배포하고 있으므로 각 단위별로 의견을 수렴해 오는 절차를 거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말하고, 교무처장 및 호크마교양대학장의 배석은 평의원 단위의 요청이 아닌 회의 진행을 위해 평의원회가 부탁드린 것임을 설명하다.
(배석: 교무처장, 호크마교양대학장)
- (4) 의장은 교무처장에게 2020학년도 전공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5) 교무처장은 4년마다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각 대학으로 공문을 송부하면 각 전공(학과)별 간담회, 학생 설문조사, 산업체 전문가 수요조사, 학과(전공) 자체 진단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편안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검토, 보완,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구체적인 교과목 졸업/전공이수학점 개편안은 '현행 교과과정 점검/환류', '전공별 인재상에 근거한 개편', '전공 교육의 질 확보', '국제화 역량 함양', '창의융합역량 함양', '수요자 맞춤형 트랙관리', '진로취업지도 강화', '교수학습방법 개선' 항목을 기반으로 한 대학별, 학과(전공)별 개편 방향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였음을 안내하다. 개편과 관련하여 교과목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필수 교과목의 경우 1명이라도 수강하여야 하는 학생이 있으면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로 개설하여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리다.
- (6) 의장은 호크마교양대학장에게 2020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7) 호크마교양대학장은 2018.3월부터 교양개편연구 TFT를 구성하고 독립적 연구를 통해 교양교육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2018.12월 교수 대상 공청회, 대학별 의견수렴 및 학생 설문조사, 4년간의 교양교육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반영한 개편안을 2019-1학기에 호크마교양교육위원회의에서 심의 및 확정하였음을 설명하다. 필수교양 ‘융합기초’ 영역명이 ‘컴퓨팅과수리적사고’로 변경되고, ‘창의와도전’ 영역 신설되었으며, 교양 이수학점 수를 감축하고 필수지정을 완화하여 부복수전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영역의 과목 수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개편의 주요 골자임을 안내하다. 이화진선미, 글로벌의사소통 영역의 필수이수 지정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각 단과대학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반영되었으며, 2019.3.14. 학생들의 교양 교과과정 개편안에 대한 공개 요구에 따라 ‘이화인에게 알립니다’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해당 일에 학생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음을 말하다.
- (8) 의장은 4년마다 이뤄지는 교육과정에 개편안을 학칙시행세칙에 반영하였음을 안내하고, 간사는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의 사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9) 의장은 전공 교과과정 개편은 교무처장에게, 교양 교과과정 개편은 호크마교양대학장에게 질문할 것을 요청하다.
- (10) 송희준 평의원은 이번 개편안이 부복수전공 활성화를 위해 교양필수 이수학점을 감축한 것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하다. 단, 단과별 특성이 다르겠지만 전공 이수학점이 확대된 학과가 있어 이는 개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다.
- (11) 교무처장은 송희준 평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다. 단, 현재 전공 교과과정은 교무처에서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각 학과(전공)에서 관련 인증이나 평가 기준 또는 학과(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학점을 정하는 프로세스임을 설명하고, 차후 교과과정 개편 시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겠다고 말하다.
- (12) 이주희 평의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학과(전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공 이수학점은 학과(전공)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어 교양 영역 중 ‘큐브’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 (13) 호크마교양대학장은 엘텍공과대학의 경우 ‘융복합교양’ 영역에서 3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했었는데 프라임 사업 진행 시 교양의 다양한 영역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융복합교양’ 영역 대신 ‘큐브’를 지정하여 이수하게 한 일부 전공(학과)이 있고, 프라임 사업을 5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도 ‘큐브’ 영역을 유지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14) 이주희 평의원은 ‘컴퓨팅과수리적사고’ 영역의 필수이수 학점이 3학점인지 질의하다.
- (15) 호크마교양대학장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 때문에 ‘컴퓨팅과수리적사고’ 영역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 ‘융합기초’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2/3 이상이 컴퓨팅 또는 수리 관련 교과목이었고, 이 영역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영역의

특성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컴퓨팅과수리적사고’로 영역명을 변경한 것임을 설명한다. 이어 호크마교양대학에서 영역명 변경 결정 이후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SW) 관련 교과목 필수 이수학점수(6학점)가 정해졌으며, ‘컴퓨팅과수리적사고’ 필수 3학점을 포함하여 나머지 3학점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설명한다.

- (16) 신하운 평의원은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제7조제3항 ‘학생은 졸업이수학점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소프트웨어(SW) 관련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8조4항 ‘컴퓨팅과수리적사고 영역의 과목 중에서 1과목(3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는 규정에서 소정의 학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질의하고, 컴퓨터 관련 수업을 6학점 이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표한다.
- (17) 교무처장은 소프트웨어(SW)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수는 확정된 사항이라고 말하고, 교양 필수(‘컴퓨팅과수리적사고’ 영역) 3학점과 추가 3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코딩 교과목 6학점 필수이수로 인식되어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소프트웨어(SW) 관련 교과목으로 범주를 확대하여 SW와 관련된 융복합 교양, 전공, 정보인증제 등을 이용해 3학점을 추가 이수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음을 알린다.
- (18) 이주희 평의원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의 전제 조건이 소프트웨어(SW) 관련 교과목 6학점 필수 이수이므로 규칙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학칙시행세칙 제7조제3항에서는 소정의 이수학점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8조4항에서는 3학점 필수로 명시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다.
- (19) 교무처장은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작성 시 교무처에서도 고민한 사안이나 지금까지 본교 규정 제정 관례 상 근거 규정을 두고 총장결재를 받아 시행해 왔고, 수강신청 및 교과과정 안내 시 6학점으로 명확히 공지될 예정임을 설명한다.
- (20) 이민하 평의원은 소프트웨어(SW) 관련 교과목 필수이수학점에 대한 학생조사 결과 3학점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6학점은 많다는 의견이었음을 전달한다. 학교에 처음 질의 시 필수 3학점이라고 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6학점으로 답변을 받았고, 추후 학교로부터 의무 6학점이나 선택형 3학점이라는 답변을 받았음을 말하고, ‘창의와도전영역’이 소프트웨어(SW) 관련 영역이 아닌지, 교과목이 결정되지 않은 채로 영역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질의한다.
- (21) 호크마교양대학장은 교양 교과과정 개편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과 관계없이 추진된 것이므로 호크마교양대학에서는 필수교양 3학점에 대해서만 전달한 것이며, ‘창의와도전’ 영역은 3,4학년 대상 프로젝트 베이스 미래지향적 교과목으로서 컴퓨팅과는 전혀 관련 없는 과목으로 역량을 키워 교과목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답한다. 이어 최근 SW교육 총괄본부에 문의했을 때 기존 전공 교과목에 소프트웨어(SW) 성격이 조금이라도 있는 교과목이 약 130개, 컴퓨터 전공 교과목을 합치면 160~170개, 기존 관련 교양 교과목을 합

- 치면 약 200개의 교과목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확인하였다고 말한다.
- (22) 유제욱 평의원은 현재 SW교육총괄본부가 소프트웨어(SW) 관련 교과목에 대해 전공 및 교양 영역에서 최대한 설계를 진행 중으로 추후 교무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으로 알고 있음을 말하며, 단, 학칙이 아닌 시행세칙에 '소정의 학점'으로 기재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다.
- (23) 이정화 평의원은 제2외국어 택1로 축소된 것을 우려하며 글로벌 영역의 축소는 국제화 취지에도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단과대학 교수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 (24) 호크마교양대학장은 영어, 제2외국어 교과목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기초교양 학점을 축소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글로벌소통' 영역에서 3~9학점 이수라는 큰 지침을 단과대학에 전달하고, 단과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음을 설명하다. 모든 단과대학이 3~6학점을 선택하였고, 9학점을 선택한 단과대학이 없었음을 알리다.
- (25) 신하운 평의원은 본교는 여자대학이고, 여학생들의 가장 큰 무기가 외국어가 될 수 있고, 이미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외국어를 통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외국어 교과목을 대폭 축소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 및 유감을 표명하다. 단과대학이 학생들의 요구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택한 단과대학이 인문과학대학 외에는 없음을 지적하며, 그동안 소수의 단과대학을 제외하고 제2외국어를 이수해 왔는데 제3외국어가 필요한 시점에 인문과학대학만 제2외국어를 선택한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어 12월에 공청회를 거쳐 교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였으나 당시 나눔리더십, 제2외국어, 글쓰기 교과목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다.
- (26) 장남수 평의원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이 몇 년 지속되는지, 그 사업을 위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인지를 질의하다.
- (27) 교무처장은 사업기간이 4년, 연장시 추가 2년임을 답하고, 초등학교부터 코딩을 필수로 이수시키고 있는 현행 제도의 중간 단계로 대학생 교육을 위한 사업임을 설명하다.
- (28) 신하운 평의원은 제2외국어가 1,2학기에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호크마교양대학장은 개설학기를 표시한 것으로 양 학기 중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답하다.
- (29) 임원정 평의원은 폐지가 많아 호크마교양대학의 교수들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는지 문의하다.
- (30) 호크마교양대학장은 2012학년도 이전, 2013학년도 이후, 2020학년도의 추이를 보면 2013학년도에 교양학점이 대폭 늘어났고, 2020학년도 개정안은 2012학년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기류임을 설명하다. 2013학년도 이후 학생들의 수강 추이를 분석했을 때

복수전공률 감소, 일반교양 축소, 전공에 영향이 있었다는 정량적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2020학년도 개편안은 2012학년도 수준임을 설명하다. 교수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왔다고 말한다. 또한 이번 교양 교과과정 개편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과 무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다.

- (31) 이민하 평의원은 학생들이 '우리말과글쓰기', '고전읽기와글쓰기'를 통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달하며, 반드시 각각의 교과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질의하다.
- (32) 호크마교양대학장은 '통합적사고와글쓰기' 팀이 여름방학부터 개발 중으로 12월 마무리 예정이며,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교과목 중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을 찾고, 유사한 성격의 교과목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다.
- (33) 의장은 학칙시행세칙에 제7조제3항의 '소정의 학점'을 컴퓨팅과수리적사고 영역 필수 3학점을 포함하여 6학점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 (34) 호크마교양대학장은 영어강의 필수이수도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학교의 소프트웨어(SW) 관련 교과목도 소정의 학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다.
- (35) 의장은 학생들이 '입학년도별 교과과정 안내'를 확인하고 수강신청 및 졸업사정을 진행하므로 시행세칙 반영 없이도 실질적인 운영과 정확한 안내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전하다.
- (교무처장, 호크마교양대학장은 설명을 마치고 퇴장하다)
- (36) 의장은 제1호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37) 남상택 평의원은 교과과정 개편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이뤄지는 점을 지적하며, 소정의 학점이 아닌 6학점을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38) 의장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사업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정과 절차를 거치며 많은 고생을 한 결과임을 전달하다.
- (39) 장남수 평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모든 학부 교과과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40) 이주희 평의원은 이후 이와 유사한 사업 진행 시 전체 단과대나 유관 학과 및 대학과 의견 수렴 후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고전읽기와 글쓰기'의 폐지와 '우리말과 글쓰기'와의 통합에 유감을 표하고, 가능하다면 '고전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일반 교양과목이라도 충분히 개설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현재 소프트웨어(SW) 관련 필수 교과목 중 3학점만이 확정되어 있고, 추가 3학점은 여러 다른 과목 중 선택이 가능한 만큼, 선택과목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무처의 quality control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다.

- (41) 의장은 본교가 교양 교육의 선도적인 대학만큼 소프트웨어(SW) 관련 교과목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무처에서 소정의 학점이라고 표시한 것은 학사운영의 유연성을 위함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다.
- (42) 이민하 평의원은 소프트웨어(SW) 관련 교과목으로 정보인증제 인정, 제2외국어 이수학점 축소, 교양 통합 축소를 실시하면서 소프트웨어(SW) 관련 교과목만 필수로 6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금을 위함으로만 보인다고 지적하며, 조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지 문의하다. 이어 전공 교과과정 개편은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으나 교양 교과과정 개편에서는 학생들이 배재되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학생을 교양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한 위원회 또는 TFT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43) 이주희 평의원은 '큐브'의 의미와 무엇의 약자인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제안하다.
- (44) 의장은 이에 동의하고, 교양 교과과정 개편 안내문에 '큐브'가 무엇의 약자인지 설명 게재를 요청하다.
- (45) 의장은 1호의안과 관련하여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어 자문을 종료하다.

나. 논의사항

□ 제2호의안: 대학평의원회 개선 관련 총학생회 요구안 검토

- (1) 의장은 제2호의안과 관련하여 '본분교 설치 및 분리 여부를 포함한 주요 사립대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과 '총학생회 공문' 내용을 설명하고, 전 회의록을 내용을 근거로 해당 안건은 의견교환으로 진행해야 할 건임을 안내하다. 이어 평의원 구성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평의원 인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바탕으로 각 구성단위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차기 회의에서 의견 교환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2) 송희준 평의원은 각 구성단위별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다.
- (3) 의장은 대학평의원회 구성 인원을 변경할 경우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을 바꾸어야 함을 설명하다.
- (4) 유제욱 평의원은 구성 인원 확대에 대한 학생평의원의 구체적인 요구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총학생회 명의를 아닌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명의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다.
- (5) 의장은 각 구성단위별(교수, 직원, 학생, 동창, 대학발전 평의원)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 건인 만큼 금일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이어

다음 회의 전에 학생평의원의 구체적인 안과 근거, 의견 수렴 결과를 미리 보내주기를 요청하다.

- (6) 이민하 평의원은 전 회의 때 이미 안건 상정 요청서를 발송했으므로 이번 회의에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회의 운영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확대 인원을 제시하기보다는 전체 평의원과 협의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하다. 단, 대학평의원회 관련하여 기능 강화, 평의원 인원 25명으로 확대, 학생평의원 1/4 이상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다.
- (7) 의장은 차기 회의 진행 시 회의자료에 대학평의원회 인원 확대 관련 전년도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이번 회의자료의 현황 조사 자료, 고등교육법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평의원에게 정식으로 다시 안건 상정 요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다.
- (8) 유제욱 평의원은 안건 발의 시 총학생회에서 원하는 구체적인 인원 구성안이 있어야 실질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하며, 발의된 법안을 근거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9) 의장은 구체화 시켜서 안건 상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개정법률안 자료는 공식 자료로 채택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참고할 것을 제안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자문 및 검토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19년 9월 25일

의 장 우 정 원 